

# 02

FTA 최근 동향



## 02. FTA 최근 동향

### I. 관세청 주요 이슈

#### 중소기업의 일괄적인 원산지 관리 지원하기 위해 "국가 FTA-HUB"<sup>1)</sup> 구축(2013. 07. 12)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지원에 힘쓰기 위해 「국가 FTA-HUB」를 구축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2일 서울세관에서 150여개 수출입기업에 대상으로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FTA-HUB의 중추적인 기능인 FTA 전자문서<sup>2)</sup> 유통망과 'ERP 연계모듈'<sup>3)</sup>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관세청은 또 'FTA 전자문서 유통망'<sup>4)</sup>과 관련해 하반기부터 개별 기업의 원산지시스템과 연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ERP 연계모듈은 ERP 사용 중소기업이 FTA-PASS를 쉽게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50개 시범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ERP 연계모듈로 인해, 그동안 ERP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현재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지원정책과 함께 중소기업이 FTA를 좀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 MOU 체결 (2013. 07. 12)

관세청(청장 백운찬)과 교육부(차관 나승일)는 7월 12일 서울세관에서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 기관에서 FTA 전문인력이 부족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점에 공감하고, 관세청과 교육부가 협력을 통해 FTA 활용을 주도해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를 통해 특성화고·전문대학에 FTA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실무 전문가를 배출하는 한편, 양성된 전문인력은 기업과의 고용매칭 지원도 협업하게 된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세관에서는 7월 22일부터 250명의 특성화 고교생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증명 및 검증대응 등 FTA 전반에 걸친 실무교육을 제공 중이다. 앞으로, 9월에는 중소기업과의 고용매칭을 실시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양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FTA 우수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산업전반에 투입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역량을 강화시켜 수출증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무료로 보급 중인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원산지관리, 자료보관, 원산지검증 대응, 전자서류 유통, ERP연계, 국가간 원산지증명서 교환 등이 가능한 FTA활용 통합플랫폼

2)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FTA활용 필수서류

3)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통합정보) 시스템

4) 개별 기업의 원산지시스템 간 전자화된 FTA서류가 상호 송수신할 수 있는 통합망

###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과 “한·중 AEO MRA<sup>5)</sup>” 활용 제고위해 대기업 CEO 간담회 개최(2013. 07. 18)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월 18일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과 한·중 AEO MRA 활용 제고를 위해 삼성전자(주) 등 20개 대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청장과 대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장은 실제 원산지검증 사례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대응방안과 지난 6월 27일 한·중 정상 앞에서 체결된 한·중 AEO MRA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은 “보다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한·중 AEO MR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AEO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AEO 대기업들에게 “중소협력사의 AEO 공인 획득 지원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세청장,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 (2013. 07. 19)

관세청장(백운찬)은 7월 19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관세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FTA 활용 지원정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제조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일시 자금경색으로

체납한 중소기업에 대한 분할 납부 허용 등 관세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후검증에 대해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검증사례 설명회, 자가진단 검증 툴<sup>6)</sup> 제공 등 사전에 검증에 대비할 방안과 함께 세관과 관세사회에 설치된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소개하였다. 한·미 FTA 관련하여 미국에서 사후검증이 요청될 경우 이를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관세청은 관세행정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더욱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의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장 소통행정 강화 노력(2013. 08. 12)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2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현장 건의사항은 단순 답변차원에서 나아가 정책안내·연계지원 등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현장에서 제시된 FTA 활용지원, 신속통관, 관세조사, 원산지 및 비관세장벽 개선 등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이 직접 기업 CEO들에게 답변하였다. 또한, 사후 조치계획을 개별 기업에 통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

5) 양국 관세당국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으로서 우리 AEO기업은 對중국 수출시 중국 세관에서 검사를 축소, 간소한 서류심사, 우선검사 등 통관상 혜택을 받게 됨

6) 주기적 정보제공, 자율점검표,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표준절의서 등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배급증인 FTA-PASS 개선 요청 등에 대해서는 기능 설명과 함께 사후관리팀 활용,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지원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중단 사례는 해외 관세관을 통해서 상대국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상대국 규정내용을 통보·조치토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을 피드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II. 우리나라 FTA 동향

### 한·중 FTA 제 6차 협상 개최(2013. 07. 02 ~ 0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27일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것을 바탕으로, 1단계 협상 타결을 위해 분야별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협상 기본지침)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에 도달하였다.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에서는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거나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또한, 양측은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그간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 시키기로 합의하였다.

### 한·콜롬비아 FTA 관련 통상장관 회담 개최 (2013. 07. 08)

산업통상부에서는 7월 8일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콜롬비아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은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콜롬비아 FTA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콜롬비아는 인구 4,600만 명(중남미 3위)의 중남미 유망 시장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중남미의 주력수출품인 광물자원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산 전자제품·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 체결은 양국 간 제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인도네시아 CEPA 제 4차 협상 개최 (2013. 07. 18 ~ 22)

한·인도네시아 CEPA 제4차 협상이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4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 규범, 협력 및 능력배양 등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금년 5월 부산에서 개최된 3차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운영세칙을 바탕으로 상품과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대 교역국이자 제7대 투자대상국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기존 양국의 경제 통상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흥국과 원·원하는 상생형 FTA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중·일 FTA 2차 협상 개최(2013. 07. 30 ~ 08. 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2차 협상에서는 제1차 협상에서 채택된 협상 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기초로 양허방식 및 협상범위 등 핵심 쟁점 위주로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상품·서비스·경쟁·총칙 분야의 작업반 회의(WG: Working Group)와 지적권·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대화(ED: Expert Dialogue)가 이루어졌다.

특히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3국은 다음 회의부터 환경, 정부조달, 식품 분야의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여 협상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까지 협상 진행상황은 협상의 틀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한·중·일 FTA를 통해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3차 협상은 오는 11월에서 12월경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 뉴질랜드·호주·캐나다와 FTA 속도 (2013. 08. 07)

교착상태에 빠졌던 뉴질랜드·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정부가 'FTA 네트워크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데다 상대국의 협상 재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2009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농축산물 시장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2010년 5월 4차 협상을 끝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뉴질랜드는 현재 협상전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FTA 타결시점을 늦췄다가는 한국의 축산물 시장을 미국·유럽연합(EU)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뉴질랜드가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는 2011년 3만9400톤에서 2012년에는 3만2700톤으로 17%가량 줄었다.

2010년 5월을 끝으로 중단된 호주와의 협상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FTA 타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국 수입쇠고기시장 점유율 1위인 호주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관세 인하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내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호주는 일본 자동차 공장이 있는 태국과 2005년 FTA를 맺고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차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제4차 협상 개최 (2013. 08. 21 ~ 22)

캐나다 역시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둘러싼 감정 악화로 2008년 하반기 협상이 중단될 때까지 양측은 16차례의 협상을 통해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가운데 1,425개(98.2%)의 개방일정에 대해 합의하였다. 양측은 2011년 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타결지은 후 최근까지 4차례 만나 남은 쟁점을 논의했다.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4차 협상이 21일부터 22일까지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산업부 FTA 서비스투자과장이 수석대표이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터키측은 경제부 협정과장 및 투자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이번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이에 부속된 상품무역협정, 여타 협정(서비스·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협정 및 상품 분야를 우선 타결, 발효할 방침이다. 다만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은 지난 2011년 제3차 협상까지 진행 후 중단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터키 FTA는 터키로서는 최초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서비스·투자 협정 체결시 한·터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III. 해외 FTA 관련 동향

#### 중국·스위스 FTA 공식 체결(2013. 07. 06)

중국은 2012년 4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아이슬란드와 FTA를 체결했으며, 중국·스위스의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이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중국은 이번 중국·스위스의 FTA를 계기로 중국과 유럽 국가와 지속해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중국과 유럽 협력에 긍정적 사례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2년동안 9차례의 협상 이후 2013년 7월 6일 정식 서명하였다. 스위스 정부관계자(연방 재무장관)는 2014년 중반 스위스내 승인절차가 완성될 것이며, 이 시기에 중국 국회의 승인절차가 완성되면 FTA가 정식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특히 양국은 산업구조가 보완적인 관계로 중국은 약품, 정밀기계, 화학공업, 금융복지영역을 폭넓게 들여와 중국 산업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중국 내 의약, 관광 부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 협상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환경, 노동, 지적 재산권 등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협상해 나갈 전망이다.

#### 미국 무역위원회 한·미 FTA 효과분석 보고서 발표(2013. 07. 13)

미국 무역위원회(ITC) 미국내 중소기업이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분석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ITC의 조사내용은 한·미 FTA가 미 중소기업의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친 영향과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을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대상기업은 농업, 생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직원 수 500명 이하)으로 약 4,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인터뷰, 우편, 전화 등을 통해 한·미 FTA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에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 부분에서 FTA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였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 FTA의 발효는 기존의 한·미 비즈니스 동반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인 관세철폐로 인한 추가적 이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본 제 18차 TPP 협상 참여(2013. 07. 15 ~ 25) 및 FTA 협상 적극적 참여

7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되는 제18차 TPP협상에 23일부터 일본이 공식 합류하기로 하였다. 최근 들어 일본은 타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일본은 페루와 FTA를 발효하였고, EU,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한·중·일 FTA, RCEP 등의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미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에도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참가할 예정이고, 호주와는 협상 타결에 일부 쟁점을 남긴 상황이다. 터키와도 FTA 협상 출범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이와 같은 FTA 추진을 통해 2018년도에 전체 교역에서 FTA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과는 지적재산권 강화, EU와는 자동차 등의 안전·환경기준의 상호승인 및 기준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 멕시코·터키 FTA 체결 가능성 제기(2013. 07)

올해 7월 말 터키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와 터키 간 FTA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터키 경제부 장관은 9월 중 예정된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터키 방문 시 FTA 논의를 바란다고 호세 안토니오 멕시코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밝혔다.

이는 2012년 4월 멕시코 경제부 장관의 양국 간 FTA 체결 가능성 언급에 이어 두 번째로, 양국 간 FTA 체결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9월 중 터키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때 양국 간 FTA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추가적으로 현재 양국에 부과되는 이중과세 철폐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역사상 멕시코 대통령의 터키 최초 방문으로, 멕시코가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터키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FTA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경우 멕시코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시장 진출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12년 멕시코의 對터키 수출액은 전년대비 97.8% 증가한 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멕시코 수출국 중 38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멕시코 전체 수출액 중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그쳐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EU·조지아 유럽연합협정 체결(2013. 08. 01)

EU와 조지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유럽연합협정(AA)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U는 EU 경제권을 러시아 영향권 하에 있는 코카서스 지역까지 넓히기 위해 조지아와 2010년 7월부터 14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본 협상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효 시 조지아 상품의 유럽 진출 확대 및 조지아의 대유럽 정치적 연합 및 경제적 통합 촉진이 예상된다.

현재 조지아는 EU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공산품과 일부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EU와 Association Agreement가 체결된다면 농산품까지도 포함한 사실상 모든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터키와 일본, FTA 협정을 향한 중요한 단계 도달 (2013. 08. 15)

양국 FTA 공동연구에서 일본과 터키의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며 자유무역협정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터키는 1, 2차산업인 농업과 제조업이 강하지만 일본은 서비스산업이 발달해 양국 간 주력 산업구조가 달라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터키는 제조업분야 내에서 약간의 기술과 품질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섬유 등 FTA 발효로 관세혜택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터키의 FTA 협상에서 터키 측은 양국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우리나라와의 FTA와 매우 유사한 전개상황을 보인다.



한편, 터키 시장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일본과의 격차를 벌이는 상황이다. 한국은 작년 기준 56억 6,000만 달러를 터키에 수출해 터키 제11의 수입국으로 기록되었다. 일본은 작년 기준 36억 달러를 수출하며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22조원대의 원전 수주를 얻고 터키와의 FTA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터키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원거리 FTA 추진은 한국 등 경쟁국보다 뒤쳐진 FTA를 따라잡는 형국이며, 주로 한국이 체결한 미국, EU, 페루, 터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와 경쟁품목이 비슷한 만큼 FTA 선점효과를 통해 지속적인 터키 시장 내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

#### 남미공동시장·EU 연내 FTA 협상 진전 가능성 (2013. 08. 18)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올해 연말까지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브라질 일간지(플라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메르코수르는 12월까지 두 블록 간 수입 관세 철폐 가능 품목 명단을 EU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메르코수르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입 관세 철폐 품목을 EU에 전달할 예정이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부터 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 주장과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맞서면서 2004년 10월 협상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브라질 외교부는 인접국들과의 관세동맹 때문에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분야에서 양자 간 협상이나 협정 체결은 가능하지만, 자유무역 분야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의 대외공동관세 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브라질 유력 일간지(플라 데 상파울루)는 지난 4월 브라질 정부가 올해 하반기 EU와 자유무역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브라질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의 하나로 EU와의 자유무역협상을 가동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협상 추진 계획도 세웠다고 말했다.

메르코수르가 회원국의 독자적인 협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탓에 브라질은 자유무역협상 분야에서 크게 낙후되었다. 1991년 메르코수르 출범 이후 브라질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스라엘뿐이다.